

# 가족은 전생의 원수? 스스로 눈 뜨면 제대로 보인다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5

일시:11월 24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부부·자식과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고마운 분이고,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더 교육해 줄 안 시켜줬다. 어릴 때 야단을 쳤다. 재산을 더 많이 안 물려줬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갖기는 커녕 아직도 바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듯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대부분 원만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원수를 보듯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원수야!' 라고 할 때,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원수라고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고통이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관계가 굉장한 이기심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안이 얼마나 좋냐? 공부 잘 하냐? 이런 것 잘 안 따집니다. 애가 되었냐? 이것만 따집니다. 즉, 의리가 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도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신용이 있느냐!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봅니다. 키도 조금 커야 하고, 얼굴도 예뻐야 하고, 신체도 건강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직업도 좋아야 하고,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야 하고, 나만 사랑해야 하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친구를 사귀다가 의리가 없으면 친구 관계를 그만두잖아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신용이 없으면 그만 둡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종합적으로 굉장한 의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좀 살아보면서 뭔가 내가 손해가 아닌가? 즉, 딱 불라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별로 덕이 없어. 그러면 '에이, 혼자 사는 게 더 낫을 걸.' 조금 더 지나면 덕 보기는 커녕 손해를 봐. 그러니까 '같이 살 필요가 없겠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질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출발할 때 관점이 벌써 잘못됐다 이겁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왜 안 좋냐? '내가 속았다. 돈 있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돈이 없더라. 성격이 좋은 줄 알았더니 성격이 나쁘더라. 속았다.' 그 말은 상대가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다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런 여자, 저런 남자를 만났느냐? 이것에 대한 이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 말이 뭐예요? '공합이 안 맞다. 전생에 우리는 원수였나봐. 전생의 원수가 이생에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습니까. 부부가 그만큼 갈등이 심하기에 이런 속설이 생겨난 겁니다. 부부관계가 나쁜 것은 공합 문제도 아니고, 사주팔자 문제도 아니고, 전생의 원수도 아니고 바로 덕 불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제 자식의 문제예요.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까 낳아도 누굴 낳았어요? 자기 낳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데 자식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자



법륜 스님

## 부부관계 나쁜 것은 서로 덕 보려는 이기심 때문

## 부처님 가르침은 내 무지·무명 깨뜨리도록 도와줘

식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이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커도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보다는 간섭하는 사람, 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간섭을 안 받으려고 집 나가잖아요. 부모가 자식이라고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것을 해줬는데 자식이 고마워하기를 커녕 오히려 원망하니까 부모로서는 원수를 하나 키운 것 같죠. 그래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원수야!' 할 때, 남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 이예요. 그래서 또 속설이 생기는 거예요.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속설들이 왜 생기느냐? 현재의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만큼 나쁘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인생의 절반 이상이 결국은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자식 때문에 이게 인생의 고민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왜 가족 관계를 맺고 사느냐? 행복하려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맺는데, 이 가족관계가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 맺고 있느냐? 바로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리, 법칙, 이치 이걸 모르고 소위 무지해서 무지해서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 이겁니다.

물질에는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모를 때는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은 그런 물질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내 필요에 맞게 이용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하늘의 별도 아니고 무지, 무명(無明), 이것이 모든 고통(苦)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거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떡하냐?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나빠지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

을 탓하고, 팔자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법칙, 자연에는 자연의 성질, 생명에는 생명의 원리, 마음 작용의 원리,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봉사가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 켜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눈을 떠라' 하셨습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무지를 깨우쳐라.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본래 밝아 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한다 해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결 할 수 없다. 다만 잠에서 깨면, 눈을 뜨면 그 모든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사가 온갖 괴로움이 생겨나며,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무지와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하신 말씀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괴롭다면, 어떤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인생살이가 괴롭다면, 어떤 자식 때

문에 괴롭든지 할 때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원리와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두 가지만 알면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처럼 까라마(Kamma) 즉, 업식(業識)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노인은 노인의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몸뚱이도 굳어서 유연하게 휘어지지 않듯이 이 생각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성질 이예요. 이미 습관화 된 것들은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시나 부모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른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언제나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냐? 부모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시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못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말하거나 어른신이 말할 때 그것을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따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지치게 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그리고,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을 '지혜롭다' 그래요. 어리석으면 원수를 만들고, 지혜로우면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부지간에는 자라는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들립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고, 싫은 소리, 자기 마음에 안드는 소리는 안 들려요. 이걸 첫째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걸 생각 안하고, 부부니까 항상 생각이 똑같은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남이면 오히려 확실히 약속을 잡는데, 부부는 이걸 분명하게 잘 안 해요. 대충해 놓고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예요. 착각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기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늘 속이 꽂혀 있어요. 참다가 참다가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이야기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 생각하면 세 번 남편이 거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남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며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이듯이 남편도 자기 생각 표현하는 것을 자유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대화를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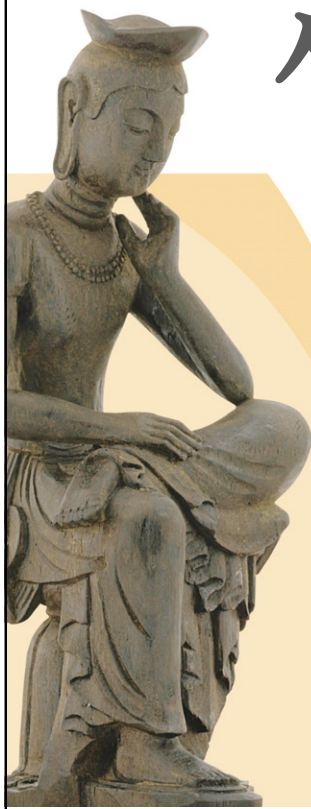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 사찰 화재보험 안내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정담보 구내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양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0-7344-1881